

섬·갯벌·바다·숲...보석같은 자원,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



〈목 차〉

- 제 1부 성장 기반을 닦다
- 제 2부 곳곳에 활력 샘솟다
- 제 3부 미래 도약 나선다
- 제 4부 지속성장 동력 갖추다

〈3〉주목 받는 서남해안 관광벨트

‘블루투어’ 프로젝트 구체화
청정 전남 16개 관광거점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접근성 높이고
다도해를 크루즈 관광메카로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청신호
‘2028 전남 세계 섬 엑스포’ 유치
목포~여수·경남 관광벨트 육성
지속가능한 섬 관광 활성화 박차



목포 해상케이블카



완도수목원



지난해 6월 여수항을 찾은 아파트 19층 높이 초대형 크루즈 ‘마제스틱 프린세스호’. 당시 대만 국적 승객 3947명, 승무원 1326명 등 5273명을 태우고 여수를 찾았다. 전남도는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목포 크루즈부두 및 여수 크루즈터미널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Meeting)·포상관광(Incentives)·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첫 글자를 따온 것으로, 전시·박람회 산업을 폭 넓게 이르는 말이다.

숲과 바다가 조화를 이룬 완도는 해양치유 거점 관광지로 육성한다. 이순신 장군과 호남 의병들을 주제로 한 호국관광벨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여수·보성·해남 등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이순신 장군 및 호남 의병 관련 유산과 역사지를 ‘호국’ 테마로 엮어 내겠다는 것이다. 진도 솔비치 호텔·리조트, 해남 오시아노 융복합관광단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신안 자은도 해양관광단지 등 이미 개장했거나 조성 중인 해양관광단지들은 대규모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거점으로 거듭난다. 남해안 절경에 자리잡은 이들 해양관광단지는 쇼핑·레저·숙박시설을 품은 체류형 복합관광지로서 전남뿐 아니라 국내외 여행객을 유인할 만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최대 난대림 자생지인 완도수목원은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조성한다. 서남해안 섬 숲들은 명품 숲으로 조성해 ‘바다와 섬, 숲’ 3박자를 갖춘 관광자원으로 만든다. 섬진강 물길 주변에는 문화예술벨트를 조성해 예술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육지와 섬을 더 가깝게 ‘접근성’ 개선 =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사업의 한 축은 남해안으로

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도시에서 전남의 섬·해안까지 도로와 철도를 신설·개선하고, 연륙·연도교와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전보다 편하고 신속하게 남도의 섬·해안과 도심 관광객을 연결하기 위해서다.

전국 해안선의 45%를 차지하는 6743km의 전남 해안선을 무기 삼아 해양관광도로 구축사업도 나선다.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구간, 여수 화태-백야 구간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 완도-고흥 해양관광도로의 국도 승격 사업 등이 포함된다. 여수와 경남 남해군을 잇는 길이 7.3km 동서해저터널의 경우 올 1월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 사업 추진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 밖에도 섬지역 접근성과 섬주민 편의 향상을 위한 연륙·연도교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무안공항과 군산을 잇는 서해안철도 건설, 전라선 여수-익산 구간 고속전철화 사업,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도 추진한다. 남해안 철도 목포-보성, 광주송정-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 역시 전남도가 추진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에 포함됐다.

혁신공항 건설의 경우 연내 착공을 위해 공항 부지 국립공원 해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65개 섬, 다도해를 크루즈 관광 메카로 =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사업의 또다른 축은 섬

관광과 크루즈 관광기반 조성이다. 크루즈 부두·터미널 등 인프라를 구축한 후 섬 2165개를 품은 다도해(多島海)를 무대삼아 크루즈관광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전남도는 서남해안과 섬 자원을 활용, 국제·연안 크루즈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크루즈 관광기반 조성이 선결과제라는 판단 아래 국비 지원 요청 등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목포 크루즈 부두 신설과 여수 크루즈터미널 신설 계획을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거문도·거금도·보길도·관매도·흑산도·증도에 연안 크루즈 부두를 건설하는 사업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용역비용 지원도 요청한 상태다. 관광객들이 크루즈를 타고 남도의 이름 난 섬을 둘러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립 섬 연구기관 및 섬 엑스포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섬 발전 성장기반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섬 발전 정책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을 전남으로 유치, 섬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포석이다. 남도의 섬 가치를 국내외와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방안 수립을 위해 ‘2028 전남 세계 섬 엑스포’ 유치 계획도 수립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부산·경남도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전남도를 비롯한 세 시·도는 남해안 광역경제벨트 구축·교통 인프라 개선·해양관광거점 조성 등 7개항을 담은 ‘남해안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을 공동 건의했다.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해안권은 지중해를 넘어서는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접근성 문제와 민간자본 투자유치가 어려워 지속가능한 개발이 부진한 실정”이라며 “전남, 부산, 경남 등 남해안권 광역 3단체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중앙정부에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남해안권이 국토의 신성장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진도 솔비치

“국내 최대 난대림 자생지 완도수목원은 블루투어 명소”

박종석 완도수목원 수목연구팀장

전남의 관광자원에는 섬과 바다, 갯벌과 함께 숲도 있다. 여러 숲 가운데 국립수목원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완도수목원이 단연 으뜸이다.

박종석(사진)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 수목연구팀장(임박박사)은 남도의 섬숲의 관광자원 가능성을 주목하는 전문가다. 자신의 초임 지이기도 한 완도수목원에 대해 “국내 최대 난대림 자생지로 한겨울에도 푸른 잎을 간직해 이국적인 느낌을 주고, 연두색 잎이 돋는 4월은 연중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뽐낸다”며 “완도수목원을 비롯한 남도의 섬 숲은 블루투어 전남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라고 높은 점수를 매겼다.

블루투어는 민선 7기 전남도가 꺼내든 새천년 비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6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바다·섬·숲 등 블루자원을 바탕으로 남도를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다.

국립수목원 지정 땀 연간 1500만명 방문·2조원 경제유발 효과

섬숲 생태복원 통해 휴양과 치유 등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 박차

박 팀장은 “전남도는 비교 우위에 있는 바다, 섬, 하늘, 바람, 천연자원 등 청정 블루자원과 유서깊은 역사와 문화자원을 숲과 연계해 전남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여러 사업 중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이 대표 주자”라고 소개했다.

완도수목원은 지난해 10월 산림청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평가단 평가를 거쳐, 거제도과 함께 ‘적격(대상지)’ 판정을 받았다. 전국 난대림(98522ha)의 92%인 9054ha가 전남에 분포하며, 이 가운데 3446ha(전국의 35%)가 완도에 자생한다.

그는 “완도수목원은 2033ha부지에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종이 자생하는 국내 최대 난대림 자생지이자 산림청에 등록된

유일한 난대수목원”이라며 “1991년 문을 열고 지난 30년간 전남도가 관리해 오면서 아열대온실과 30여개의 전문소원, 계류보전 및 임도,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도수목원은 국립난대수목원 유지를 통해 난대림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보전, 천연물 추출 및 산업화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산업을 이룰 남해안권 관광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와 완도수목원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 분석 결과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로 인해 연간 방문객 150만명, 고용 유발 2만 8000명 등 2조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2000억원 규모로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를 투자, 산림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형 사업이기에 전남도에서도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서남해안 섬 숲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 박 팀장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섬별 향토·문화·역사성을 부각해 숲을 복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천사대교 등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늘어나는 섬 관광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섬숲 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41%가 월 1회 이상 숲을 찾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기후변화 등으로 숲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특히 수목원은 살아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교육장이며, 자연과 인간의 연결은 물론 휴양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생태관광 자원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